

“내가 가는 ‘길’, 후배들에게 ‘희망의 나침반’됐으면”

‘한국 여자양궁 전설’ 기보배, 모교 광주여대 정식교수 임용

좋은 선배로, 인정받는 교수로 선한 영향력 함께 나누고 싶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광주...작은 역할이나마 보탬됐으면
후배들이 운동·학업 병행 선수생활 이후 다양한 길 찾길 바라

“후배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배로, 학생들에게는 실력있는 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27년 양궁인생을 마감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기보배가 모교 광주여대 강단에 선다.

지난 1일 광주여대 스포츠학과 교수로 임용된 기보배는 “선수로서 꿈을 키웠던 모교에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모교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재학시절 숱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님과 동문들의 응원이 든든한 힘이 됐다. 광주여대는 지금의 기보배를 있게 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전달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주여대에서 기량을 키운 기보배는 2012

런던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을 이뤘다.

기보배는 “양궁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며 “2012년에 이어 2016년 최미선, 2021년 안산까지 3회 연속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배출이라는 빛나는 기록을 모교에 남길 수 있어 항상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양궁 대들보로 활약을 이어갔고, 2017년 결혼하고 출산한 뒤에도 현역으로 뛰며 지난해 태극마크를 마지막으로 활시위를 내려놨다.

기보배는 은퇴에 대해 “선수로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올림픽 금메달 꿈도 이뤄 후회나 미련은 없었다”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



모교 광주여대에서 교수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기보배가 5일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다”고 밝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전공학부 교수로 임용된 것은 기보배가 처음이다.

기보배는 “양궁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 부담도 되지만 뿌듯하다”며 “저는 양궁선수로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속에서도 스스로의 겸손함을 잃

지 않았기에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선수가 기량을 잃는 것은 한 순간이다. 겸손함을 잃은 상태에서 실력이 무너지면 큰 선수가 되기 힘들다.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량이 아닌 인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궁 후배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 폭넓은 시야로 선수 인생 이후 새롭고 다

양한 길을 찾길 희망한다. 내가 걷는 첫 걸음이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올림픽, 양궁 세계선수권, 양궁 월드컵 파이널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37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며 2017년 대한민국의 체육훈장 최고등급인 청룡장(1등급)을 수상했던 ‘한국 여자양궁의 전설’ 기보배는 비록 활시위는 놓았지만 양궁에 대한 역할은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했다.

올해 열린 파리올림픽에서는 해설위원으로 현장에 서는 기보배는 “꿈을 키우고, 꿈을 이뤘던 광주는 내 삶의 터전이었다”며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보배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준 것은 광주시민들의 아낌없는 응원의 힘이였다. 광주시청, 광주여대 시민위원회의 염원을 믿겨줌으로 좋은 선수로 성장했고, 모교 교수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기쁠때나, 힘들때나 항상 곁에서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감사함 잊지않는 기보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희중기자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5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두터워진 텃스...준비는 끝났다”

KIA, 2024 스프링캠프 낙오없이 완주...오늘 귀국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024 시즌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하고 6일 귀국한다.

KIA 구단은 5일 “호주 캔버라와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

번 스프링캠프에서 체력 및 기술훈련을 거친 뒤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번 스프링캠프 MVP는 투수 박준표와 내야수 윤도현이 받았고, ‘모범상’에는 투수 황동하와 내야수 이우성이 선정됐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어 부상없이 낙오한 선수 없이 캠프를 마쳐 만족스럽다”며 “훈련을

진행하면서 백업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 특히 눈에 띄었고, 팀의 텃스가 두꺼워져 시즌 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범경기부터 주전 선수들이 기용되며 컨디션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선수들 모두 지금까지 잘했고 개막 전까지 이 상태를 꼭 유지해 줬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KIA 선수단은 하루 휴식을 취하고 8일 창원으로 이동한 뒤 9일 NC와 시범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프로야구 연간 중계권료 990억원...구단 ‘큰 도움’

TV와 유무선을 합친 프로야구 연간 중계권료가 990억원에 이르면서 10개 구단의 살림살이에도 숨통이 트였다.

KBO 사무국은 기존 계약과 같은 연평균 540억원에 지상파 방송 3사와 TV 중계권료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또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업체 티빙을 거느린 CJ ENM과 유무선 중계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연평균 450억원을 받기로 했다.

KBO 사무국은 미디어 기업에서 받는 연간 중계권료 990억원을 3~4년에 걸쳐 10개 구단에 균등 배분한다.

유무선 중계권료가 종전 연평균 22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올라 각 구단이

받는 연간 중계권료 수입은 작년 기준 76억원에서 99억원으로 29% 증가했다. 100억원에서 딱 1억원 빠진 액수다.

중계권료 인상에 프로 10개 구단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KBO 사무국이 주도하는 통합 마케팅과 KBO닷컴 설립을 탐탁지 않게 여긴 각 구단 대표는 중계권료 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KBO 사무국을 칭찬했다고 한다. 모기업에 요청해야 할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다.

한 구단의 관계자도 “해마다 국외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 소요 비용이

10억원 정도 든다고 볼 때 중계권료 인상 수입 230억원은 국외 전지훈련을 두 번 더 갈 수 있는 금액”이라며 “구단별로 용처가 다르겠지만, 마케팅 등 다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구단별 연간 중계권료 수입 99억원은 선수단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무선 중계권료가 크게 올라가면서 무료 시청 시대가 저물고 유료 시청 시대가 열렸다. 이제 프로야구는 돈을 내고 볼만한 콘텐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선수들에게 있다. /연합뉴스

‘K리그 데뷔골’ 가브리엘, 1R MVP

광주FC, 이희균·정호연·김진호·포포비치 ‘베스트 11’



K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광주FC 가브리엘이 2024 시즌 첫 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홈 개막전에서 썩기 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를 견인한 가브리엘이 1라운드 MVP로 뽑혔다”고 밝혔다.

가브리엘은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맞고 굴절된 공을 오른발로 마무리해 K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다.

이밖에도 서울의 측면을 허무는 저돌적인 돌파력을 선보이며 K리그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보여줬다.

이날 경기에서 돋보인 활약으로 개막전 승리를 이끈 이희균(FW)·정호연(MF)·김진호(DF)·포포비치(DF)는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승리 팀 광주는 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고, 양 팀의 경기는 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이름을 올렸다. /박희중기자



2024 K리그 1 라운드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광주FC 가브리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5일 열린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신규선수 입단식. 왼쪽부터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 윤태성, 김요성 광주시청 문화체육실장, 이한태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담당.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장애인양궁기대주 윤태성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입단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5일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신규 선수 윤태성 임용식을 진행했다.

윤태성(39)은 2022년 광주장애인양궁협회 신인선수로 발굴돼 지난해 2월부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소속 장애인 스포츠 선수로 활동했다.

윤태성은 주중 양궁 훈련 외 주말 야간을 가리지 않고 체력 강화 등 개인보강 훈련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6월 첫 참가한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장애인 전국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목포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은메달 1개(컴파운드 2인조), 동메달 3개(컴파운드 개인전, 랭킹라운드 종합, 혼성 2인조)를 획득하며 주목을 받았다.

윤태성은 “저를 믿고 실업팀 선수로 추천해준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님의 기대에 걸맞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차 목표는 2025년 국가대표로 발탁돼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기자

올해 승률 90% 신진서 51개월 연속 ‘랭킹 1위’

국가대항전인 농심 신라면에서 불꽃 같은 투혼으로 한국의 역전 우승을 견인한 신진서(23) 9단이 51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질주했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3월 랭킹에서 1만418점을 기록, 2위 박정환(0천907점)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 3라운드에서 중국과 일본의 정상급 기사들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두는 등 9승 1패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 20승 2패로 승률 0.909의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진서는 최초로 연간 승률 90%에 도전한다.

변상일·신민준 9단은 변동 없이 각각 3~4위에 올랐고 김명훈 9단은 두 계단 상승한 5위가 됐다.

설현준 9단은 6위를 유지했고, 강동운 9단은 두 계단 하락한 7위, 김지석·한승주 9단은 자리를 맞바꿔 각각 8~9위, 안성준 9단은 4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여자기사 중에서는 최정 9단이 두 계단 하락한 21위, 김은지 9단은 8계단 상승한 54위, 김재영 8단이 5계단 하락한 78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